

열악한 환경 딛고...농어촌 초등학교 문화예술·체육교육 '희망 만들기'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한 소규모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내 예능·체육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남다른 교육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평 신광초등학교(교장 안연옥)은 최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전남 초등학교학생합창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신안군 자은초등학교(교장 김철홍)는 최근 신안군 압해읍 군민체육관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신안군 수기 생활체육대회 씨름대회'에서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교생 36명 화음 배우니 '소통이 절로'

함평 신광초 합창동아리

전남도 경연대회 우수상

전남 도내 초등학교 18개교가 참가한 이번 합창대회에서 함평 신광초 새빛 합창동아리는 경연곡인 동요 '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과 '내 친구 금강이'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6학년 전교생(36명)이 처녀 출전했다.

신광초는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문화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합창 교육을 실시했다.

전교생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학생 간에 협동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3~6학년 27명이 해보면의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봉사활동과 함께



함평 신광초등학교(교장 안연옥) 학생들이 최근 목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전남 초등학교학생합창경연대회'에서 동요를 선보이고 있다.

합창을 선보여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이 교내 학예발표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합창을 위해 무대 올랐을 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 흐뭇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농촌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연옥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즐겨 부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예술 감성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살바 잡고 땀 흘리다 보니 '우리는 하나'

신안 자은초 씨름부

신안군수기 초등부 준우승

전통 민속경기인 씨름의 전통을 생활스포츠화로 이어가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됐다. 초등부 경기는 신안군 관내 읍·면을 대표하는 19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남자 3명(후보 3명)·여자 2명(후보 2명)의 선수들이 체급에 상관없이 출전에 5판3선승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은초는 전교생 50명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생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1,3,5주째 토요일에 4시간씩 씨름 살바를 잡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5학년 5명과 6학년 11명 가운데 6학년 김수겸·이민욱·성우진·박수지·조아라, 5학년 김형중·김정미 학생이 출전해 짧은 연습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을 맘껏 발휘해 영예의 준우승을



최근 신안군 압해읍 군민체육관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신안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씨름대회'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한 신안군 자은초등학교 씨름부.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학부모 김정중씨를 초빙해 발다리와 안다리 등 씨름기술을 익혔다.

자은초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과 특기 계발, 창의적 인성교육 등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씨름 교육을 실시했다.

황소 트로피를 치켜 든 학생들은 "씨름 연습을 할 때는 힘들었는데 준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씨름부를 조직해 뒷바라지를 해 온 김세은 교사는 "체계적인 지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



저염김치로 식생활 바꿔 보세요

함평군 주민들이 최근 함평군 보건소 주최의 '저염김치 담그기 교실'에서 김치양념을 배우고 있다. 군 보건소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 국향대전 20만명 다녀가...입장료만 7억여원

전국 축제중 최고 수익률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6억원 이상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며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2일 함평군은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10월 24~11월 9일) 입장객 수는 지난 해보다 1만1000여 명이 늘어난 20만119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입장료 수입도 크게 증가해 7억4780만원을 거뒀다.

또 농·특산물과 나르다 기념품, 음식점

등 현장 판매액도 지난해보다 1억1700만원이 늘어난 11억4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5억원, 기초단체 3억원 이상 축제중 보조금 없이 요금수익만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수익 창출면에서도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전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향대전은 대형 국화작품과 야외전시, 국화분재와 함께 다

재로운 체험행사 위주로 펼쳐졌다. 올해 처음으로 조성한 '국화 동물원'은 아기자기함으로, 아이들과 연인들의 사진촬영명소가 됐다.

독립문의 실제 크기와 모양을 본 따 국화로 만든 대형 독립문을 비롯해 마법의 성, 9층 꽃탑 등 대형 국화조형물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안병호 군수는 "전국 최고의 수익률과 전국 최고의 축제답게 내년에도 또 오고 싶은 축제, 재방문하고 싶은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학부모는 배우고 청소년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만들자

무안군 '무안읍 활성화' 공모 앞두고 주민참여 100인 토론회

무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6년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사업비 80억원) 공모를 앞두고 주민참여형 토론회를 마련, 논의를 끌었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문화체육·도시계획 등 12개 분야 15개 팀으로 나눠 종합토론에 이어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 종합토론에서는 무안읍의 대표자원을 찾고 대표 자원을 활용한 비전 설정에서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무안군의 중심이 되는 무안읍'이 선정됐다.

2부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가 배울 수 있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선 순위에 선정됐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터미널 이전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재난 분야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활용에 대한 교육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특별위원회에서는 공부환경 조성을 위해 협소한 공공 도서관 대신 청소년 독서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은 12월 중 주민공청



학생들의 분임토의 모습.

회를 통해 확정된 후 2016년도 무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해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7층 **참조은 피부과**
입점완료
11월 22일(토) 개원예정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원**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1층 **신한은행**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역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찰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구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지까지 좋음 14억, 건물은 5층과 2층 2동 있음.
-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9억 월 430 교환가능 24억 5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매도 13억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북동 모델 대지 508㎡(154) 건평 825㎡ 28실 대출 6억5천 매도 9억4천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별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투자 매도 교환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진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쌍촌역 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선 수익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 5억2천
- 진월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월주거지 남구 입촌동 575㎡(174) 매도 1억8천

임대

- 쌍촌동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용도 보증금 4천에 월 200이내 타협해서 조정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서관

토 지 임 대
화정동 대로변에 접한 토지, 모델하우스 및 대형 전시장 최적.

- 지역 : 준주거지역
- 지목 : 대
- 면적 : 3,215㎡
- 임대 : 협의(매매도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 역 : 1종주거지역(2필지)
- 지 목 : 전
- 면적 : 1,600㎡ @780㎡
- 매 가 : 3.3㎡ 당 140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접.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지,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준공업지역
평동공단 1번도로 끝 계획도로 접, 전 및 임야 투자적합

- 지역 : 준공업지역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9,027㎡
- 매가 : 3.3㎡ 29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대청)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회관 근처
현,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 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